

53번째, 농기구이야기

물건을 나르는 도구
‘걸 채’



(걸 채 © 농업박물관)

○ 편집 및 발행 :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○ 발행일 : 2012. 12.
○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,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.

1. 걸채의 명칭

걸채는 길마 위에 얹어 곡식 등의 짐을 실어 나를 때 쓰는 농기구이다. 소의 등에 ‘걸치는 채(틀)’란 의미를 가진 말로, <농가월령가 農家月令歌>에는 ‘발츠 |’로 표기되어있고, 지역에 따라 ‘돛발채’(경기도 화성), ‘베걸채’(경기도 안성), ‘발구’(충청남도 서산), ‘발기’(전라북도 남원)로 불린다.

걸채의 다른 이름인 발채는 지게 위에 얹는 소쿠리 이름으로 지게에 짐을 실을 때 흠어지기 쉬운 자갈한 짐을 담는 것으로 바소쿠리라고도 부른다. 농기구 이름은 지방에 따라 다양하게 불려 전혀 다른 농기구에 대해 같은 이름이 지어지곤 했다.



걸채(©농협 농업박물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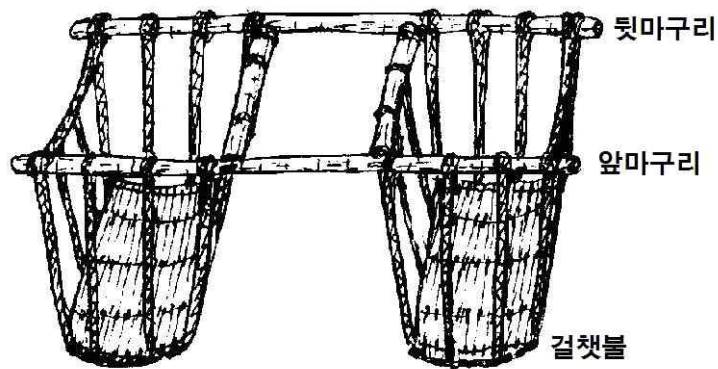


지게의 ‘발채’(©네이버)

2. 걸채의 형태

길이가 약 150cm 되는 어른 팔뚝 만한 굵기의 나무 2개를 가로로 놓고(앞마구리, 뒷마구리), 그 가운데 비슷한 굵기의 나무를 세로로 놓아, 길마를 걸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세 칸으로 만들어져 있다. ‘ㅍ’자 형으로 가운데는 길마를 걸치고 양쪽 칸에는 짐을 실을 수 있게 새끼줄을 매어 여러 가닥의 늘어 뜨려 짐을 싣는다. 늘어뜨린 줄을 ‘벼릿줄’이라고 하는데, 이 벼릿줄 아래에는 방석 같은 바닥(걸채불)이 되게 짜서 매달았는데 지방마다 싣는 물건에 따라 바닥부분을 달리 만들어 사용하였다. 걸채의 총

무게는 13kg 정도(경남 창녕)이며, 벼단을 차곡차곡 쌓아 나르게 되면 한번에 200~300kg을 실을 수 있었다.



겉채의 부분 명칭(©박호석)

【참고문헌】

국립국어원

김광언, 1969, 『한국의 농기구』, 문화재관리국

한국농업기계학회, 2001, 『한국농기구도감』

박호석, 2004, 『한국의 재래농기구』

보리출판사, 2009, 『겨래 전통 도감-농기구』